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속감의 자유로움 일 것이다. 고등학교때는 학년, 반, 번호 모든 것이 친절히 정해졌고, 그에 따라 내 소속은 몇학년인지, 몇반인지, 심지어 이 반에서 몇번에 속하고 있는지 너무나 자명했다. 그러나 대학에 오니 소속감만큼 느슨한 것이 없었다. 매우 자유로웠다. 그 자유로움 때문일까 나는 그 소속감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소속감이 느슨해지니 오히려 소속감을 더 갈수하게 되는 것 같았다. 언제나 함께 놀던 친구가 있었고, 함께 대화하던 익숙한 풍경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들을 이젠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했다.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속에 집착하고 무언가 일을 맡고, 그러다보니 어떤 공간에 집착하는 일도 잦아졌다.

 어느 순간 그런 나의 모습이 괴기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소속감에 대한 집착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고, 오히려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 갈등으로 소속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자 다른 소속감에 더욱 집착하는 일이 생기고 이는 악순환이 되었다. 심지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동아리방을 잠깐이라도 들러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속감에 대한 집착은 일상에서 나를 힘들게 했다. 모든 일정이 나에게 소속된 단체의 일정에 맞춰져 있었고, 모든 행사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개인시간이 없었다. 취미 시간도 딱히 없었고,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어 작은 갈등이 또 다시 생기게 되었다. 나 혼자서 무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없다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갔다.